

230102 (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9) '67, 310'

신년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간을 매일 아침 성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이쁘게 여기시고 풍성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십니다.

시작기도:

이 주간에는 예고한 대로, 시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지요. 시편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 유대인들이 했던 방식인데요. **모세 5경의 구조에 따라**, 시편을 **다섯 권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1권은 1-41편까지로 창세기 내용에 해당되는 '사랑과 창조'에 관한 책. 2권은 42-72편까지로 출애굽기 내용에 해당되는 '해방과 구속'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담고 있고.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로 레위기에 해당하는 내용 '성소와 예배'가 그 주제가 됩니다. 4권은 90-106편까지, 민수기 관련한 주제 '방랑과 고난'에 대한 것. 마지막 5권은 107-150편까지로, 신명기에 해당하는 '율법과 찬양'에 대한 책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현대로 오면서 **문학적 내용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찬송시, 탄식시, 감사시, 확신시, 예언시, 지혜시 등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와 개인으로 분류해서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 우리는 이번 주간에 6가지 문학 장르에 해당하는 시편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찬송시에 해당하는 **시편 8편**이 되겠습니다.

말씀교독: 시편 8편

이 시는 이스라엘의 신년축제, 즉 장막절에 사용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시

편 8편을 '밤에 부르는 찬송'이라고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밤을 잘 묘사하는 시라는 거죠. 시인은 그러나 단지 아름다운 야경을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그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이 시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주께서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셨듯이, 온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소중한 존재로 인간이 있습니다.

이 시는 부제로 다윗의 시라고도 되어 있으니, 베들레헴 언덕 주변에서 양떼를 지키다 자주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노숙을 하곤 했을 목동 다윗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생히 깨닫게 되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자연현상의 신비함과 그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영광을 보았노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그의 찬양은 **마지막 9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시인의 핵심 고백이라는 말이죠. 2절에서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새번역)하노라고 하며, 그런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문이 꼭 막히게 만드신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호산나 찬양하며 당신을 환영할 때에 분내며 배척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구절을 인용하여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마 21:15-16**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3-8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사

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생각해주시느냐?”는 것이지요(4).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그렇게도 아름다운데, 인간은 그 찬란한 하늘보다 더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었노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된 존재-즉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보이는 세상 중에 가장 하나님 닮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며, 이 인간의 발 아래 모든 피조세계를 두셨다고 노래합니다. 5-6절 **“그를(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인간)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할렐루야! 너무나도 송구하고, 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시인은 이 놀라운 고백을 아름다운 밤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찬양-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멋진 풍경도 많이 보시고, 그 때마다, 그 세상을 한껏 누리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나를 세워주셨음을 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청지기**라는 것. 이것을 아는 지식이 참 지식이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가장 멋지고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의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 우주의 변두리로 자꾸 나를 몰아내지 말고, 우주의 중심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걸까? 연약하고, 너무나 순간적이고 변덕이 죽끓듯 하고, 얄팍하기 이룰데 없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걸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흔한 세상 논리-합리성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셨을까? 쉽게 더럽혀지고, 부서지고, 깨질 수 있는 나 같은 자를, 이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걸까, 주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일까? 그 사랑을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휘틀 목사**는 이런 찬송시를 지었는지 모르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 난 알 수 없도다...왜 믿음 주시는지...내 맘이 항상 편한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도무지 알 수 없다고... 그러나 한 가지 내 형편 아시는 주님이 늘 보호해 주실 것, 그것만은 내가 확실히 아노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찬양**이죠.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Tip : 충분히 기도하시고, 일어나십시오. 내려가시면, 아침빵과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1)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를 너무 구박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요. 정당한 자부심 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2)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헤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3)피조세계를 다스리라 했더니, 인간들은 자기 욕심 채우는데 급급해-그 탐욕으로 지금 온 세계가 오염되고 다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사람만이 아니라, 땅을 사랑하고, 밥을 소중히 여기고, 동물 식물들을 귀히 여기며 살게 하소서. //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들, 큰 가정 우리 선교교회 되도록,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계속해서 이어가십시다.

묵상찬양연주가 흐르고....다같이 기도.